

2024
고2 문학
지학사

2024 고2 문학 지학사 | 3(2)(1) 사미인곡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사미인곡」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시어 및 시구를 통해, 화자의 처지와 심리뿐만 아니라, 사용된 표현 방법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중심 소재인 '미화', '옷', '청광', '양춘' 등의 의미는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심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생(平生)애 원(願)하오디 혼디 네자 하얏더니,
 늑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엇그제 님을 되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엇디하야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 올 저괴 비슨 머리 헛틀언디 삼 년(三年)일쇠
 연지분(胭脂粉) 잇니마는 늘 위하야 고이 홀고
 마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져 이셔
 ㉡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심(人生)은 유한(有限)혼디 시롬도 그지업다
 ㉢ 무심(無心)혼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흐논고야
 염냉(炎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밧고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꺾듯 냉담(冷淡)혼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 황혼(黃昏)의 돌이 조차 벼마터 빗최니
 늦기논 듯 반기논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며 미화(梅花)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옷 디고 새넙 나니 녹음(綠陰)이 쏘렸논디
 나위(羅幃) 적막(寂寞)하고 슈막(繡幕)이 뷔여 잇
 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꺾듯 시롬 한디 날은 엇디 기뚱던고
 ㉤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색선(五色線) 플터
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 꺾니와 제도(制度)도 꺾줄시고
 산호수(珊瑚樹) 지게 우히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천리(千里) 만리(萬里) 길히 뉘라셔 촌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 김의 기러기 우러 널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슈정렴(水晶簾) 거든 마
 리
 동산(東山)의 돌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므워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
 저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넛꺾티 밍그쇼셔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백설(白雪)이 혼 비
 친 제
 사롬은 꺾니와 놀새도 꺾쳐 잇다
 쇼상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 옥루(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닐러 므스흔리
 ㉧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모침(茅簷) 비친 히롤 옥누(玉樓)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너미치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
 더
 일모슈득(日暮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님의 히 수이 디어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론 것터 던공후(鈿箜篌) 노하두고
 썸의나 님을 보려 툇 밧고 비겨시니
 ㉨ 앙금(鴛鴦)도 촌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흐르도 열두 새 혼 돌도 설흔 날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롬 닐자 하니
 마음의 미쳐 이셔 골슈(骨髓)의 썰터시니

㉔ 편작(扁鵲)이 열히 오다 이 병을 엇디히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빅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 므틴 놀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ㅎ노라
 - 정철, 「사미인곡」

1.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화자가 하계(下界)에 오게 된 지 3년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㉒: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 등장하고 있다.
- ③ ㉓: 화자와 임 사이를 험하게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④ ㉔: 임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㉔: 임이 처한 상황을 떠올리며 임을 향한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2. ㉕~㉗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㉕: 임과 이별한 후 화자의 심정을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② ㉖: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㉗: 임을 위한 화자의 정성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④ ㉕: 임에 대한 염려를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㉖: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과장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한 학생을 고르면?

— <보기> —

정혁: '광한던', '봉황누', '쇼상남반'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있겠구나.
 나은: '연지분', '녹음', '홍상'은 이 작품의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소재야.
 지성: '동풍'은 화자가 임에게 보내주고 싶은 것으로, 화자의 마음을 상징하는 소재야.
 다홍: '청광'은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 임금의 선정을 기원하는 소망이 담긴 소재야.
 수아: '심산궁곡'은 화자가 임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장소야.

- ① 정혁
- ② 나은
- ③ 지성
- ④ 다홍
- ⑤ 수아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심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스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생(平生)애 원(願)하요디 혼디 네자 하얏더니,
 늣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엇디하야 하계(下界)에 느러오니
 올 저괴 비슨 머리 헛틀언디 삼 년(三年)일쇠
 연지분(胭脂粉) 잇닉마는 늘 위하야 고이 홀고
 마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혀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심(人心)은 유한(有限)혼디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혼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흐논고야
 ㉢ 염냉(炎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 창(窓) 밧긔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띄어세

라

궂득 냉담(冷淡)혼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黃昏)의 ㉠ 돌이 조차 버마티 빗최니
 늦기논 듯 반기논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며 미화(梅花) 것거 내어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쏫 디고 새넙 나니 녹음(綠陰)이 쏘렸논디
 나위(羅幃) 적막(寂寞)하고 슈막(繡幕)이 뷔어 잇

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궂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뻐던고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색선(五色線) 플터

내어

금자히 견화이셔 ㉢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 궂니와 제도(制度)도 궂줄시고
 산호수(珊瑚樹) 지게 우히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천리(千里) 만리(萬里) 길히 뉘라셔 초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 김의 기러기 우러 널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슈정념(水晶簾) 거든 마

리

동산(東山)의 돌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 청광(淸光)을 띄워 내어 봉황누(鳳凰樓)의 붓티
고져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낫궂티 밍그쇼셔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백설(白雪)이 혼 비
 친 제

사름은 궂니와 놀새도 궂쳐 잇다

㉢ 쇼상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루(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닐러 므스 흐리

㉢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모침(茅簷) 비친 히를 옥누(玉樓)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너의 초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

더

일모슈독(日暮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님의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론 것티 던공후(鈿箜篌) 노하두고
 쏬의나 님을 보려 톡 밧고 비겨시니

앙금(鴛鴦)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쏘고
 흐르도 열두 새 혼 돌도 설흔 날

저근듯 심각 마라, 이 시름 닐자 하니
 마음의 미쳐 이셔 골슈(骨髓)의 쏘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다 이 병을 엇디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 궂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나다

향 므틴 놀애로 님의 오식 올드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흐노라

- 정철, 「사미인곡」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 ② ㉡: 이별을 슬퍼하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 ③ ㉢: 임에 대한 화자의 굳은 충성심이 투영된 자연물이다.
- ④ ㉢: 임에 대한 화자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⑤ ㉢: 임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임의 부재에 대한

슬픔이 반영된 소재이다.

신유형

「사미인곡」의 시어 및 시구를 묻는 문제 이외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님의 침묵」의 표현상의 특징과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단순히 현대어 풀이와 관련된 한자성어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미인곡」은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정한을 시·공간의 이미지와 연관 지어 노래한다. 먼저 시간과 연관 지어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화자가 일 년 내내 오로지 임에 대한 생각에 매여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작품 전반에서 천상과 지상이라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임과의 거리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① ㉠에서 '광한면(廣寒殿)'은 화자가 임과 함께하던 천상의 공간이고, '하계(下界)'는 화자가 임과 이별하고 있는 지상의 공간이다.
- ② ㉡에서 '염냉(炎涼)'이 가고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임과의 이별로 지상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화자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의 '미화(梅花)'와 '암향(暗香)'은 임에 대한 화자의 지극한 사랑과 변함없는 충정을 보여 준다.
- ④ ㉣에서 '청광(淸光)'을 '봉황누(鳳凰樓)'에 올리고 싶어 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임에 대한 생각에 매여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에서 '쇼상남반(瀟湘南畔)'과 '옥루(玉樓) 고쳐(高處)'는 각각 화자가 있는 지상과 임이 계시는 천상으로서 공간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막음 이스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생(平生)애 원(願)호요디 혼디 네자 호얏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엇그제 님을 되셔 광한면(廣寒殿)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느려오니
 을 저괴 비슨 머리 헛틀언디 삼 년(三年)일쇠
 연지분(胭脂粉) 잇니마는 늘 위호야 고이 홀고
 막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혀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성(人生)은 유한(有限)호디 시롬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호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호논고야
 염냉(炎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밧괴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굿득 냉담(冷淡)호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黃昏)의 돌이 조차 버마티 밧최니
 늦기논 듯 반기논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梅花)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쏫 디고 새닙 나니 녹음(綠陰)이 쏘렷는디
 나위(羅幃) 적막(寂寞)호고 슈막(繡幕)이 뷔여 잇
 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들러 두니
 굿득 시롬 한디 날은 엇디 기듌던고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식선(五色線) 플터
 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 꺾니와 제도(制度)도 꺾지시고
 산호수(珊瑚樹) 지게 우희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산(山)인가 구름인가 며흐도 며흐시고.
 천리(千里) 만리(萬里) 길히 뉘라셔 초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 김의 기러기 우리 널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슈정렴(水晶簾) 거든 마
 리

동산(東山)의 돌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되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띄워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
 저

누(樓) 우희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낫꺾티 밍그쇼셔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백설(白雪)이 흰 비
 친 제

사롬은 꺾니와 놀새도 꺾쳐 잇다
 쇼상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루(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닐러 므습허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모침(茅簷) 비친 히를 옥누(玉樓)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의치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
 더

일모슈득(日暮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님의 히 수이 디어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론 것티 던공후(銅箜篌) 노하두고
 쏘의나 님을 보려 톱 밧고 비겨시니
 양금(鴛鴦)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흐르도 열두 새 흰 돌도 설흔 날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롬 닐자 하니
 므옴의 미쳐 이셔 골슈(骨髓)의 썰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다 이 병을 엇디허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A] 출하리 식어디어 범나브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나다
 향 므틴 놀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흐노
 라

- 정철, 「사미인곡」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두 개 고르면?

- ① 한국 문학의 내용적 특징 중 자연 친화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 ② 기승전결과 선경 후정의 전개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비유와 상징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우리말 사용이 돋보이고 4음보의 율격을 통해 전통적 율격을 느낄 수 있다.
- ⑤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노래함으로써 애절한 마음을 절실하게 전달하였다.

7.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4음보 율격의 연속체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여성 화자에 의탁해서 애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4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시각적 이미지를 촉각적 이미지로 전이시켜 표현하고 있다.
- ⑤ 대구법과 설의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를 이루는 구절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 ② 대유적 표현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나타낸다.
- ③ 대조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드러낸다.
-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상황을 강조한다.

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미인곡」은 정철이 50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물러나 전남 창평에서 은거할 때 지은 가사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절을 노래하고 있다. 자신을 임과 이별하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여성으로 설정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력 있게 그려냈으며, 뛰어난 우리말 구사와 세련된 표현으로 높은 문학성을 보이고 있다. 충신연주지사의 전통과 부재하는 임에 대한 자기희생적 사랑을 드러내며 우리 문학에서 한의 정서를 계승하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 ① '훈심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는 임과 화자가 천생연분임을 하늘이 몰라주는 것을 야속해하는 표현이군.
- ② '연지분(臙脂粉) 잇네마는 늘 위하야 고이 홀고'는 임금에게 고운 모습을 보이기 위한 정철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나위(羅幃) 적막(寂寞)하고 슈막(繡幕)이 뷔어 잇다'는 전남 창평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그 속에서 느끼는 무료함을 나타낸 것이군.
- ④ '산호수(珊瑚樹) 지게 우희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는 부재하는 임에 대한 화자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 구체화된 장면이로군.
- ⑤ '홍상(紅裳)을 니미치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더'는 임과의 이별 후 흐트러진 정철의 모습을 시각화한 것으로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군.

10. <보기>를 바탕으로 [A]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미인곡」의 화자는 한순간도 임을 잊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잠시라도 임을 잊어 보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뺏속 깊이 그리움이 사무쳐 전설적인 명아가 오더라도 고칠 수 없는 지경이다. 화자는 차라리 죽어서 다시 태어나 범나비가 되기를 원한다. 나비가 되어 꽃 향기를 문혀 임의 옷에 앉아 향기를 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임이 화자를 알아보지 못하여도 끝까지 임을 따르겠다는 다짐으로 작품을 마무리한다.

- ① 현생뿐 아니라 후생에서도 임을 따르겠다는 일편단심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 ② 뛰어난 의사가 와도 임을 향한 상사병은 고칠 수 없음을 과장의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③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이를 수 없는 사랑에 아파하며 모든 생각과 시름을 잊기 위해 죽기로 마음먹고 있다.
- ④ 하루와 한 달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한순간도 임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시름이 얼마만큼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범나비'는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임과의 사랑을 다시 태어나서라도 이루고 싶어 하는 화자의 간절한 바람이 투영된 대상이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어 업다.
 평생(平生)애 원(願)호요디 혼디 네자 호얏더
 니,
 늣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났더
 니
 그 더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느러오니
 [A] 올 저긔 비스 머리 헛틀언디 삼 년(三年)일씩
 연지분(胭脂粉) 잇니마는 늘 위호야 고이 흘
 고
 마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혀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싱(人生)은 유한(有限)호디 시롬도 그지업
 다
 무심(無心)호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호논고
 야
 염냥(炎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밧긔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굿득 냉담(冷淡)호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黃昏)의 돌이 조차 버마티 빗최니
 늦기논 듯 반기논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 더 미화(梅花) 것거 내어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쫓 디고 새넙 나니 녹음(綠陰)이 질렸논디
 나위(羅幃) 적막(寂寞)호고 슈막(繡幕)이 뷔어 잇
 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들러 두니
 굿득 시롬 한디 날은 엇디 기뵈던고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식선(五色線) 플터
 내어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 ㄹ니와 제도(制度)도 ㄹ 줄시고
 ㉡ 산호수(珊瑚樹) 지게 우히 백옥함(白玉函)의 다
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천리(千里) 만리(萬里) 길히 뉘라셔 초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 김의 기러기 우러 널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슈정념(水晶簾) 거든 마
 리
 동산(東山)의 돌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띄워 내어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
 저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낫 ㄹ티 밍그쇼셔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호야 백설(白雪)이 혼 비
 친 제
 사롬은 ㄹ니와 놀새도 굿쳐 잇다
 쇼상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루(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닐러 므스 호리
 ㉣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모침(茅簷) 비친 히를 옥누(玉樓)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너미치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
 더
 일모슈독(日暮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님의 히 수이 디어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론 것티 던공후(鈿箜篌) 노하두고
 ㉤ 솜의나 님을 보려 톱 밧고 비겨시니
 앙금(鴛鴦)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B] 흐르도 열두 새 혼 돌도 설흔 날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롬 닐자 하니
 마음의 미쳐 이셔 골슈(骨髓)의 새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다 이 병을 엇디 호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브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나다
 향 므틴 놀애로 님의 오식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호노
 라

- 정철, 「사미인곡」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ㄴ. 시적 대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
 ㄷ. 비유적 표현으로 화자의 애절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ㄹ. 공간의 이동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ㅁ. 시적 대상과 직접 대면하여 화자가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ㅁ
- ⑤ ㄴ, ㄷ, ㄹ, ㅁ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임에게 매화를 꺾어 보내겠다는 것으로 이별한 임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 ② ㉡: 손수 지은 옷을 백옥함에 담아 산호수 지게 위에 올려두겠다는 것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지극한 정성이 담겨 있다.
- ③ ㉢: 깊은 산골짜기까지 대낮처럼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궁핍한 환경에 처한 화자의 상황이 담겨 있다.
- ④ ㉣: 따뜻한 봄별을 임에게 보내고 싶다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임이 추울까 염려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 ⑤ ㉤: 꿈에나 임을 보려고 턱을 바치고 기대어 있다는 것으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담겨 있다.

13. [A]와 [B]에 주목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의 '늙거야 무슨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에 나타난 상황의 원인을 '하늘'에서 찾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 ② [A]의 '평생(平生)애 원(願)호요디 훈디 네자 호얏더니'에 드러난 화자의 현재 소망이 '광한면(廣寒殿)의 올넛더니'에서 실현되고 있군.
- ③ [B]의 '호르도 열두 새 훈 돌도 설흔 날'을 통해 임의 부재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세월의 무상감이 나타나고 있군.
- ④ [A]의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가 [B]의 '저근덧 심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호니'에서 해소되고 있군.
- ⑤ [A]의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생기시니'와 [B]의 '식어디여 범나비'가 되어 '내 님 조초려 호노라'가 대응되어 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군.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시대 때 정서가 지은 『정과정곡』과 주제 면에서 상통한다.
- ② 여성을 화자로 내세워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4음보 율격이라는 점에서 시조와 같지만, 길이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시조와 다르다.
- ④ 김만중은 『서포만필』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이 담겨 있으면서도 천박함은 없다'고 호평하였다.
- ⑤ 서사-본사-결사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본사는 계절의 순서에 따라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㉔은 임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화자가 처한 상황에 해당한다.

① '하계'는 인간 세상, 즉 작가가 낙향하여 지내는 전라도 창평을 의미하며, ㉑에서 화자가 하계에 올 때 빗은 머리가 흐트러진 지 3년이라는 것은 화자의 유배 생활이 3년이 되었음을 드러낸다.

② ㉒의 '돌'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금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자 임금을 비유한 대상이다.

③ ㉓의 '산'과 '구름'은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간신을 의미한다.

④ ㉔에서 화자는 임이 추울 것을 염려하여 임에게 '양춘'은 보내고 싶어 하고 있다.

2. 정답 ②

㉔는 임금이 자신을 불러 주지 않는 상황에서 덧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즉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① ㉑는 임과 이별한 후 화자의 슬픔을 대구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㉒는 임을 위해 화자가 정성스럽게 옷을 짓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㉓의 '옥루 고쳐'는 임금이 있는 곳으로, '므슴허리'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는 임금이 있는 곳의 추위를 염려하고 있다.

⑤ ㉔의 '편작'은 뛰어난 의사로, 화자는 '편작'이 오더라도 임금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고칠 수 없다며, 과장법을 통해 자신의 그리움과 시름을 강조하고 있다.

3. 정답 ④

'청광'은 지혜를 상징하는 빛으로, 임금의 선정을 의미한다. 화자는 '청광'을 임이 계신 '봉황누'에 부쳐 임이 '청광'으로 심산궁곡을 대낮같이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즉 임금의 선정을 갈망하는 작가의 마음

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광한던', '봉황누'는 임이 계신 곳이지만, '쇼상남반'은 화자가 위치한 곳이다.

② '연지분', '홍상'은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소재이지만, '녹음'은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③ '등풍'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로, 화자가 임에게 보내주고 싶은 것이 아니다. 화자가 임에게 보내주고 싶은 것은 '민화'에 해당한다.

⑤ '심산궁곡'은 임금의 선정이 미치지 못한 곳으로, 화자가 있는 창평을 의미한다.

4. 정답 ④

화자는 임이 추울 것을 염려하여 ㉔을 부쳐 내어 임 계신 곳에 쏘이고 싶어 한다. 즉 ㉔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이 형상화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① ㉑는 임금을 비유한 것이다.

② ㉒는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③ ㉓는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의미한다.

⑤ ㉔은 임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임의 부재에 대한 슬픔이 반영된 소재가 아니다.

5. 정답 ②

㉔에서 '염냥'은 더위와 서늘함, 즉 계절의 순환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염냥'이 가고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염냥'이 때를 알아 다시 온다고 말하고 있다. 즉 임과의 이별로 지상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화자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운 화자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㉑의 '광한던'은 임이 계신 곳으로, 천상의 공간이자 화자가 과거에 임과 함께 있던 공간이다. 한편 ㉑의 '하계'는 화자가 있는 곳으로, 지상의 공간이자 화자가 현재 임과 떨어져 있는 공간이다.

③ ㉒의 '민화'와 '암향'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충성심을 상징한다.

④ ㉓의 '청광'은 지혜를 상징하는 빛으로, '청광'을 임금이 계신 '봉황누'에 올리고 싶다는 것은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⑤ ㉔의 '쇼상남반'은 화자가 위치한 지상의 공간인 전라도 창평이고, '옥루 고쳐'는 '광한뎐', '봉황누' 등과 마찬가지로 임금의 계신 천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6. **정답** ①, ②

자연 친화 의식이 한국 문학의 내용적 특질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윗글은 한국 문학의 내용적 특질 중 자연 친화 의식이 아니라 한(恨)의 정서가 드러난다(①). 한편 윗글은 서사-본사-결사의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기승전결과 선경 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은 주로 한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②).

③ 윗글은 다양한 비유와 상징적 기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윗글은 뛰어난 우리말의 사용이 돋보인다. 특히 맨 뒷부분의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 내 님 조차려 흐노라'에서는 한자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 문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윗글은 우리 시가의 대표적 율격 중 하나인 4음보 율격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윗글은 '연지분', '홍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임과 이별한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7. **정답** ④

윗글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촉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킨 시각의 촉각화와 같은 공감각적 이미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① 윗글은 4음보 율격의 연속체로 이루어진 가사에 해당한다.

② 윗글은 '연지분', '홍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임과 이별한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윗글의 본사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⑤ 윗글은 '훈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의법과 대구법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8. **정답** ②

대유법은 사물의 한 부분이나 그 속성을 들어서 전체나 자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으로, 윗글에서 대유법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① 윗글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법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뎐(廣寒殿)의 올낫더니 / 그 더딧 엇디하야 하계(下界)에 느러오니'에서 화자의 처지가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④ '무심(無心)한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흐논고야'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의 흐름을 물이 흐르는 것에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다.

⑤ '연지분(胭脂粉) 잇네마는 늘 위하야 고이 홀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9. **정답** ④

'산호수(珊瑚樹) 지게 우희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는 부재하는 임을 위해 화자가 정성스럽게 지은 옷을 담아 둔다는 것으로, 화자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 구체화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① '훈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는 임과 화자가 천생연분임을 하늘도 안다는 의미이다.

② '연지분(胭脂粉) 잇네마는 늘 위하야 고이 홀고'는 임금이 곁에 없으니 '연지분'으로 자신의 모습을 곱게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의미이다.

③ '나위(羅幃) 적막(寂寞)하고 슈막(繡幕)이 뷔어 잇다'는 임 없이 홀로 지내는 화자의 쓸쓸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⑤ '홍상(紅裳)을 니미치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더'는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만 견어'라는 뜻으로, '홍상'을 통해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을 뿐, 임과의 이별 후 흐트러진 정철의 모습을 시각화하여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10. **정답** ③

[A]에서 화자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 범나비가 되어 임을 좇고자 하고 있다. 즉 화자는 죽어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생각과 시름을 잊기 위해 죽음을 결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① [A]에서는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임에 대한 화자의 일편단심이 드러난다.
- ② [A]에서는 뛰어난 의사(편작)가 와도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과의 이별로 인한 시름으로 생긴 화자의 병은 고칠 수 없음을 과장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④ [A]의 '흐르도 열두 새 혼 돌도 셨흔 날'은 임에 대한 그리움과 시름의 양을 강조하고 있다.
- ⑤ [A]에서 '범나비'는 임과 재회하기 위해 화자가 죽어서라도 되고 싶은 존재로, 화자는 현실에서 못이룬 임과의 사랑을 '범나비'가 되어 이루고 싶어 하고 있다.

11. 정답 ①

- ㄱ. 윗글의 본사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ㄴ. 윗글은 임(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ㄷ. 윗글은 다양한 비유와 상징적 기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ㄹ. 윗글에서 공간의 이동은 확인할 수 없고, 화자의 내적 갈등의 해소도 확인할 수 없다.
- ㅁ. 윗글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과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

12. 정답 ③

- ㉠의 '심산궁곡'은 임금의 선정이 미치지 못한 곳, 화자가 있는 창평으로, 화자는 '심산궁곡'까지 임금의 선정이 달기를 바라고 있다.
- ① ㉠의 '미화'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한다.
- ② ㉡은 화자가 임을 위해 지은 옷을 산호수 지계 위의 백옥함에 담아 놓겠다는 것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드러난다.
- ④ ㉢의 '양춘'은 봄벌로, 임이 추울 것을 염려하여 화자가 임에게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는 '옥루 고쳐'에 있는 임이 추울까 염려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 ⑤ ㉣은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라는 의미로,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13. 정답 ⑤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생기시니'는 '이 몸 생겨 날 때 임을 따라 생겼으니'라는 뜻이고, '식어디어 범나비'가 되어 '내 님 조차려 흐'겠다는 것은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 임을 좇으려 한다는 뜻이다. 이들 모두 임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충성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에 해당한다.

- ① '늡거야 무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에서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지만, 화자가 자신의 상황의 원인을 '하늘'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평싱(平生)애 원(願)호요되 혼디 네자 호얏더니'에 임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현재 소망을 확인할 수 있지만, '광한뎨(廣寒殿)의 올낫더니'에서 이러한 소망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광한뎨(廣寒殿)의 올낫더니'는 임과 함께하던 과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③ '흐르도 열두 새 혼 돌도 셨흔 날'은 임의 부재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시름이 나타나고 있다.
- ④ '짚늑니 한숨이오 디늑니 눈물이라'에서 화자의 '시름'이 드러나고, '저근뎨 심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흐니'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시름을 잊고자 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시름은 명의가 와도 고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화자의 시름이 해소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14. 정답 ②

윗글은 임금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임과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 노래한 작품으로, 윗글에서 시적 대상은 죽은 남편이 아니다.

- ① 윗글은 고려 때 정서가 지은 「정과정곡」에서 비롯된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을 이어받은 작품이다.
- ③ 윗글은 시조와 마찬가지로 4음보 율격을 지닌 가사이다. 그러나 가사는 시조와 달리 길이의 제한이 없다.
- ④ 김만중은 『서포만필』에서 정철의 가사인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은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이 담겨 있으면서도 천박함은 없다고 평가하였다.
- ⑤ 윗글은 서사-본사-결사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사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5. **정답** ⑤

화자는 '황혼의 돌'을 보고 '님이신가'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임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노여'는 '다시', '전혀'라는 뜻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윗글의 화자는 임에 대해 원망의 정서를 보이고 있지 않다.
- ② 세월이 물 흐르듯 무심하게 흐른다는 것이므로 '흐느고야'의 주어는 화자가 아니다. 따라서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다.
- ③ '미화'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로, 화자와 대비되는 자연물도 아니고 의인화된 자연물도 아니다.
- ④ '므스 일고'는 매화의 향기를 강조하기 위한 설의적 표현으로, 뜻밖의 현상을 보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16. **정답** ⑤

'염냥'은 더위와 서늘함, 즉 계절의 순환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염냥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온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빠르게 흘러감을 표현한 것이다.

- ① '흔심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와 같이 임과 화자의 연분을 '흔'과 연결 짓고 있는데, 이는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② '점어 잇고'는 과거 임과 함께하던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늣거야'는 현재 임과 떨어져 있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점어 잇고'와 '늣거야'를 통해 화자가 '생로병사의 과정'이 없는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하계'에 올 적에 빗은 머리가 흐트러진 지 3년이라는 것을 통해 화자가 임과 헤어진 지 3년이 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임과 함께하던 때를 '엇그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한 것에 해당한다.
- ④ 화자는 천상의 시간과 달리 지상의 시간은 유한

한데 세월이 무심하게 흐르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17. **정답** ③

③의 '하계'는 인간 세상, 즉 작가가 낙향하여 지내는 전라도 창평을 의미한다. 따라서 ③은 임과 떨어진 화자의 처지를 보여 주므로 ㉠와 관련 있는 구절로 가장 적절하다.

①, ②, ④, ⑤ 나머지는 모두 ㉠의 상황을 드러내는 구절이 아니다.

18. **정답** ①

㉠에서 화자는 뛰어난 의사가 와도 자신의 상사병을 고칠 수 없다며 과장법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시름을 강조하고 있다. 과장법을 대변할 수 있는 사자성어는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을 의미하는 '침소봉대'가 가장 적절하다.

- ② '촌철살인'은 한 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③ '청출어람'은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파죽지세'는 대를 쪼개는 기세라는 뜻으로, 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를 이르는 말이다.
- ⑤ '사면초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19. **정답** ②

화자는 차라리 죽어 범나비가 되어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앉았다가 향 문헌 날개로 임의 옷에 울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문맥상 ㉠에 들어갈 시구로는 임을 좇겠다는 의미인 ②가 가장 적절하다.

①, ③, ④, ⑤ 나머지는 모두 ㉠에 들어갈 시구로 적절하지 않다.

20. **정답** ③

'산'과 '구름'은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로, 간신을 의미한다. 화자와 임과의 물리적 거리는 '천리 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